緊急動議 『水準 下』에 나려라!

어린이 글짓기

○文敎部는 올해 처음으로 「글본」 교과서를 편찬, 내부했고 새학회도 어린이날○○을 대통령상바기 「한국어린이 글짓기내○○기」 첫작품兒童에대한 施賞式을연다○○○○터한 인력의 육적인은 「대학을 졸업해○○○도편지하나 제대로못쓰는 非正常을 수○○○정, 청소년과어린이들에게 思考를 훈련○○○하고 자기들 표현학주이는 作文敎育의○○○○강화를 목적으로 학것이다。

○도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요즘의 젊은交人이 大邱 馬山 光州 全州 충신의 많을뿐아니라 六·二五로 피난간 文人들의영향이 컸고 五·一六쿠데타 北상주郡內의 어린이작품 대거 발표되었고 성실한 몇몇 지도교사의 역이었다。

○현재 어린이作文의 의욕 키워주는것으로는 「새벗」 「새어린이」 등 아동잡지와 「소년동아」 「소년한국」 「소년조선」 어린이신문등 아동매스콤。 그리고 서울敎育大學 소년「한국」 등과 어린이단체는 白日場을 열고있다。 그러나 이들은 완벽한솜씨를 자랑하는것이며 범作文운동을 펴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런점을 지양하기위해 글짓기指導會는 작문교사를 年二回강습하고 五六年에 발족된 새작회는 개별적으로 부고한 어린이 작품에 직접평을 담아 작품에 직접평을 담아 학교에 돌려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일부 제지도를 해결계획。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 二百여편을 뽑은 어린이글을 인쇄, 전국민학교에 배부할예정이다。 四十년가까이 어린이작품을 지도해온 尹石重씨는 『피아노나 미술의 예능교육에는 기를쓰는 자모가 교양인으로서 가장 기초인 作文敎育에는 왜 그처럼 관심이 없는지 알수없다』 면서 문교당국과 어린이 지도자 교사단과함께 부모의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金炳翼기자>

特賞저금통등九점 새싹회글짓기大會

새싹회는 제1회 「한국글짓기대기」에서 권미영(평택·오성교)의 「저금통」(대통령상) 등 七편의특상과 九편의특선, 二百六편의 입선작을결정, 十분 반도호텔에서 시상한다고 五日오후二시三

因原 客觀式 出題·教材부실이

意欲 북 몸 우는 汎運動전개 를 有能敎師의 誠實한指導

敎育과정 部에서 국어분 가르치는 國內秀씨는 「신입생들의文 章이 엉망」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접 쓴작품을구 체적으로 교재주는 훈련을한경과 半學期사이에는 한정도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유능한 지 도교사의 역할은 크다。 서울大의 敎育과정 部에서 국어분 가르치는 國內秀씨는 「신입생들의文 章이 엉망」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접 쓴작품을구 체적으로 교재주는 훈련을한경과 半學期사이에는 한정도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유능한 지 도교사의 역할은 크다。 서울大의 敎育과정 部에서 국어분 가르치는 國內秀씨는 「신입생들의文 章이 엉망」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접 쓴작품을구 체적으로 교재주는 훈련을한경과 半學期사이에는 한정도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書舍餘話

同伴

내 고향 忠南 연기에서는 五~六年 전부터 조직된 文化院 主催로 鄕土文化復興에 공시 노력을 하고 있는듯하다。 매년 出鄕人士 초대를 年中行事로 하는 모양인데 院長의 간곡한부탁으로 작년 모처럼 故鄕人과 同鄕出身들을 만나볼 기회인데, 가로 작정하고 내려갔었다。 여덟대 이번에도 例外없이 우가 많았기에 이번에도 작해보니 文人 冒論 人 敎育者 實業人등 다수가 모였다。 여기에 나도 한몫 끼이게 된셈이다。 많은사람과운데 아내를 同伴한 이는 나뿐 이었다。 院長이 눈치를 채고 地方 유수作家인 金여사를 나의 아내에게 同伴시켜 주었기에 나의 立場도 가벼워지고 한편 그 好意에 감사하였다。 군치에들러 郡守와 인사를할때 우리 부인이 그런席上에 나오는것 처음이라는 것이다。

놀라운내 자연스러운 우리夫婦의 행동이 夫婦同伴에 저부른 이 夫婦同伴이 앞으로는 夫婦同伴을 장려해야겠다고 우리의 席을 같이하여주어 내심으로 아내와같이 온것을 감사하였다。 생각하였다。

요즈음 젊어서는 데이트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다시 다시 강화하여 있으나 불쾌하지는 않았다。 난처하 大會가 끝나고 저녁 파티席에서 자 요로운 분위기로 主催者側에서들 이야기하는것은 충합해보니 이 地方人士들 에게 「제일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부인이 그런席上에 나오는것 처음 라세가 있는것만 다행이다。

伴侶

만나이들면서부터는 夫婦同伴이 지는경향이 있는듯 하다。 그것은 서로 생각과 生活이 다르다보니 서로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가를 아껴주어야한다고본다。 서로 방向이 같이 進行하여 나가는 것이 모든다。 夫婦는 서로 상대방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서로 아껴주어야한다고본다。 즉 精神生活의 生活도 일치할 것이며 생각 한다면 두생각이 하고자 하는일을 理解 이 일치하면 生活도 일치할것이니까。 近來 우리夫婦 生活도 같은 생각이오」 하고 동시에 또한쪽에서 생각 이 일어나면 「옳거니! 나도 같은 생각이오」 하게끔됐다。 이것은 始發點이 되어선 道에 들어선 우리夫婦同伴이 道에 나가나 해 볼까。

鎭 張旭 <齋家>

美術評

南寬씨 滯佛作品展

—南寬씨 滯佛作品展

이번 전시된 작품은 「리차드·버튼」과 「클린트·이스트우드」가 주연한 「리차드·버튼」과 「클린트·이스트우드」가 주연한 「나바론」의 「A·배클린」原作 「브라이언·허튼」監督의 戰爭謀略映畫